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010광주·전남농협 업무보고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조기분리에 대한 자본금 지원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신·경 분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농협 자본금 지원 등 법제화 없인

# 신용-경제사업 분리 못해"

### 최원병 중앙회장 광주·전남농협 업무보고회서 밝혀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조기 분리를 요구하는 정부가 자본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조 개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4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0 광주·전남농협 업무보고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신·경을 분리할 경우 부족 자본금 6조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행법상) 사업 분리 과정에서만 1조2천억원, 분리 후에는 2개 법인이 매년 약 4천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를 위한 관련 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경분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분리에 따른 중앙회의 보험사업 진출과 관련, "보험사업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농협이 그동안 손해를 감내하면서 지역에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이 농협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 등 지속적인 농협개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지역조합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업무보고에서 ▲시장지향적 농축산물 판매 인프라 확충 ▲농가 실익지원 사업 확대추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Digital & IT

카드+통신 융합 '모바일 카드시대'

# 결제·포인트·쿠폰… 휴대폰 하나로 OK

###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한꺼번에 자동 처리

### 통신사 신용카드사와 제휴 조만간 서비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지갑의 두께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모바일 신용카드를 내놓으면서 지갑에 들어가는 카드는 물론 멤버십 카드나 할인카드 등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지분 협상을 마무리한 SK텔레콤과 하나카드는 대형마트인 H마트와 제휴해 모바일 결제 시범 서비스 '스마트페이먼트'를 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로 결제는 물론 각종 쇼핑 정보를 단문메시지(SMS)로 실시간 전송받고 내려받은 모바일 할인쿠폰을 결제 때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3세대(3G)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 3천여명이 사용 중인 신한카드는 KT, SK텔레콤과 손잡고 통신요금 결제 및 요금 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각종 멤버십 카드를 집어넣고 가장 많이 할인해주는 카드를 골라 결제하고 동시에 마일리지도 적립하는 서비스도 조만간 실시된다.

비씨카드는 내달 중 3G 기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비씨카드 인수를 추진 중인 KT 역시 차세대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융합 상품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회원사(주로 은행계)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연내 10만 장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이통사와 제휴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는 하나카드와 SK텔레콤이 선보인 서비스처럼 카드와 통신이 융합 상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용카드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3G 휴대전화 내 USIM 칩에 신용카드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가입 고객이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심사를 거쳐 휴대전화 발급 가능 메시지(SMS)를 전송하고, 고객이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기능이 USIM 칩으로 옮겨진다.

SK텔레콤·하나카드와 제휴를 맺은 H마트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위한 계산 창구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현될 경우 휴대전화로 카드와 할인카드·멤버십카드가 한꺼번에 계산되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선과 같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바일 신용카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전국 150만개의 가맹점에 모바일 결제용 단말기를 보급하려면 3천억원이 필요하다.

또 결제할 때마다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비밀번호 유출 우려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이를 이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휴대전화 하나로 생활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광주지역 신학기용품·아동복 구매 고객 살펴보니

# 엄마·아빠 대신 할머니·이모 북적

### 저출산 시대, 손자·손녀·조카들 위해 소비 늘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용품이나 아동복 구매를 위해 조부모, 이모, 고모 등이 지갑을 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손자, 손녀, 조카가 귀해지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골드미스들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아동과 스포츠 캐주얼 등 새학기 관련 상품군의 고객별 매출 비중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조부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50~60대의 매출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

고모나 이모에 해당하는 30대 여성의 매출비중 증가율은 2008년 2%, 2009년 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20~40대 기혼남녀는 매출비중이 전년보다 11%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와 이모, 고모 고객들이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아동용품 매출비중을 살펴본 결과 50~60대가 전체 매출에서 10.1%를 차지했다. 이들의 매출비중은 2008년 8.8%, 2009년 9.3%로 꾸준히 늘고있다. 또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54.7%에서 58.3%로 3.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의 매출 비중은 2008년 30.5%에서 2009년 28.8%, 올해는 26.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경제력있는 30~40대 미혼 여성인 '골드 미스'의 증가와 1955~1963년 출생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조카나 손자들을 위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선물용 상품을 사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따지는 '부모 고객'과 달리 기능이나 디자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석·박사 '고학력 알바족' 급증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최근 3년간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지원 이력서 2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중이 2007년 13.6%에서 지난해 20.9%로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중은 2007년 11.9%에서 지난해 18.5%로 높아졌고, 석·박사는 2007-2008년 1%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2.4%로 껑충 뛰어올랐다.

2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2007년 66.7%에서 지난해 76.9%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에 고등학교 재학·졸업생의 비중은 32.7%에서 22.7%로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 롯데마트, 대규모 할인 행사

롯데마트가 창립 행사 수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올해 초 대형마트 업체들이 생필품 할인 경쟁을 벌이다 최근 각자의 노선을 가졌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선제적으로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대형마트 업계에서 제2의 가격전쟁이 촉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할인 폭과 준비 물량을 일반 할인 행사에 비해 2배가량 늘린 '서프라이즈 상품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과 딸기, 세제 등 인기 상품을 선별해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한다. 또 소갈비를 돼지갈비 가격에, 보온병을 물병 가격에, 전기주전자를 일반 주전자 가격에 판매하는 '배보다 배꼽 상품전' 등 다양한 생필품 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 光銀 전산센터 이전… 내달 13일 고객서비스 일시 중단

광주은행은 전산센터 이전에 따라 다음달 13일 오전 2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대 고객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단되는 업무는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과 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거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각종 조회 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해당한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사고 신고와 모든 문의는 광주은행 콜센터(1588-3388, 1600-4000)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도 살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